

2020년 5월 22일

# KIWO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중 마찰 및 연준위원들의 발언으로 하락 파월 연준의장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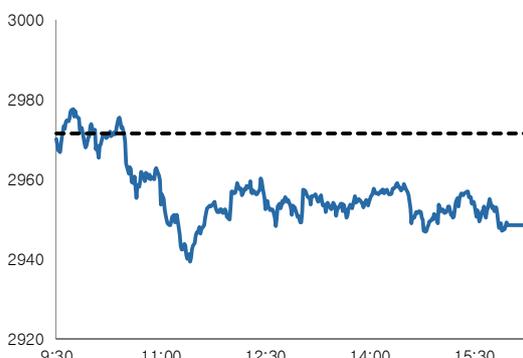
### 미 증시 변화 요인: 반도체 등 기술주 중심의 하락

미 증시는 차익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홍콩을 둘러싼 중국 정부와 트럼프의 마찰, 파월 연준의장 등 연준위원들의 경기 회복 지연 언급 등 경제 불확실성, 고용 불안 등으로 하락. 특히 그동안 미 증시를 이끌던 언택트 관련 종목을 비롯한 기술주가 하락 주도한 반면, 일부 소매 유통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등 종목 차별화가 진행되며 하락 마감(다우 -0.41%, 나스닥 -0.97%, S&P500 -0.78%, 러셀 2000 +0.05%)

최근 연준위원들은 경기 회복 지연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오늘도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는 “경제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릴 것” 이라고 주장. 여기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추가적인 부양정책을 펼쳐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라며 현재 경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장 초반 하락.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도 “알 수 없는 깊이와 기간의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다” 라며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표명. 더불어 “경제와 고용은 하반기에 개선 되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 이라고 전망. 파월 연준 의장 또한 “경제 하강은 갑작스럽고 심각하며,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라고 언급. 다만, 대부분의 연준위원들은 경제 지원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안정을 위한 노력을 언급해 시장 불확실성의 추가적인 확산은 제한

한편,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홍콩을 두고 마찰이 확산. 중국 정부는 양회가 시작된 가운데 홍콩 의회 대신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22 일(금) 단행 할 것이라고 발표. 지난 2003 년 관련 법안을 홍콩 의회가 재정하려고 하다 많은 시민들이 반대해 취소된 적이 있어 이번 법안 처리는 홍콩 시위 확산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 22 일 관련 법안에 대해 전인대가 통과 시키면 두달 후 전인대 상무위가 최종 통과. 트럼프는 “이번 문제가 발생 한다면 매우 강하게 다룰 것” 이라고 발표. 더불어 상원에서도 긴급하게 홍콩 관련 법안을 추진하면 제제를 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 최근 코로나 사태에 이어 홍콩 이슈로 미-중 마찰 확산 우려가 더욱 커져 불확실성이 높아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0.44	1,998.31	홍콩	24,280.03	-0.49	24,280.03	-0.49
KOSDAQ	+1.02	716.02	영국	6,015.25	-0.86	6,015.25	-0.86
DOW	-0.41	24,474.12	독일	11,065.93	-1.41	11,065.93	-1.41
NASDAQ	-0.97	9,284.88	프랑스	4,445.45	-1.15	4,445.45	-1.15
S&P 500	-0.78	2,948.51	스페인	6,686.10	+0.04	6,686.10	+0.04
상하이종합	-0.55	2,867.92	그리스	608.34	-0.36	608.34	-0.36
일본	-0.21	20,552.31	이탈리아	17,087.06	-0.73	17,087.06	-0.7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1%

TJX(+6.78%)는 실적이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 코로나 피해를 완화 시키기 위해 많은 소매 업체가 온라인 매출에 주목했으나 TJX는 비즈니스 모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예상을 크게 하회한 실적 발표 요인이었다. 실제 TJX의 온라인 매출은 총 매출의 약 2%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미 예상되었던 수치였다는 점, 현 정부의 지침에 따라 6월 말까지 모든 매장을 오픈한다는 점, 그리고 JC 페니, 니만 마커스 파산 신청으로 코로나 이후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급등했다. 콜스(+7.84%), 로스스토어(+6.58%)도 동반 수혜 기대 속 급등했다.

반면, 넷플릭스(-2.55%)는 경제 재개가 진행되자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며 하락했다. 아마존(-2.05%), 줌 비디오(-1.97%) 등 여타 코로나 수혜 종목들도 동반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미-중 마찰 확대 및 D램, NAND 가격 하락 여파로 마이크론(-3.04%), TI(-3.42%), 퀄컴(-3.26%) 등 반도체 업종도 부진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1% 하락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NVIDIA(-2.17%)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로 하락을 보이고 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77%	대형 가치주 ETF(IVE)	-0.63%
에너지섹터 ETF(OIH)	-0.45%	중형 가치주 ETF(IWS)	-0.40%
소매업체 ETF(XRT)	+2.04%	소형 가치주 ETF(IWN)	+0.13%
금융섹터 ETF(XLF)	-0.32%	대형 성장주 ETF(VUG)	-0.79%
기술섹터 ETF(XLK)	-1.39%	중형 성장주 ETF(IWP)	-0.5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04%	소형 성장주 ETF(IWO)	+0.08%
인터넷업체 ETF(FDN)	-0.96%	배당주 ETF(DVY)	-0.44%
리츠업체 ETF(XLRE)	-0.5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1%
주택건설업체 ETF(XHB)	+1.6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7%
바이오섹터 ETF(IBB)	-1.08%	미국 국채 ETF(IEF)	+0.07%
헬스케어 ETF(XLV)	-0.74%	하이일드 ETF(JNK)	-0.02%
곡물 ETF(DBA)	-0.80%	물가연동채 ETF(TIP)	-0.11%
반도체 ETF(SMH)	-2.53%	Long/short ETF(BTAL)	+0.5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90.88	-1.48%	+6.52%	+10.20%
소재	333.44	-0.99%	+5.16%	+8.02%
산업재	538.45	+0.17%	+6.99%	+4.30%
경기소비재	983.74	-0.16%	+5.51%	+8.22%
필수소비재	586.04	-1.04%	+0.67%	-1.61%
헬스케어	1,156.32	-0.81%	-0.25%	+0.39%
금융	364.54	-0.35%	+3.80%	+2.41%
IT	1,687.43	-1.40%	+3.29%	+10.55%
커뮤니케이션	179.04	-0.45%	+5.31%	+9.90%
유틸리티	282.46	-1.01%	+0.41%	-4.06%
부동산	198.09	-0.54%	+2.85%	-3.1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중국 전인대 주목(업무보고, 홍콩 관련 입법)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4% MSCI 신흥 지수 ETF 도 1.14%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32.5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연준위원들의 경기 회복 지연 발언과 트럼프의 홍콩 관련 언급에 따른 미-중 마찰 확대를 빌미로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지며 하락했다. 특히 D 램, NAND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자 반도체 업종이 부진했으며(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1%), 그동안 강세를 보여 왔던 넷플릭스(-2.55%) 등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주도 했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에서 그동안 상승을 이끌던 관련 종목들의 차익 욕구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오늘 전인대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 추진이 이뤄진다. 이 결과 미-중 마찰 및 홍콩 시위 확산 우려도 부담이다.

한편, 오늘 중국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등 주요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한다. 시장은 코로나 피해로 위축된 성장률 목표치 및 재정적자 확대 수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 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6.8%였던 점을 감안 나머지 분기에 지속적으로 9% 가까운 고성장을 유지 해야 전면적인 샤오강 사회 건설 목표가 이뤄지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사실상 목표 수정이 불가피하며 새로운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재정적자 확대 규모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오늘 한국 증시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전인대 내용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심리 지표 전월 대비 개선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68.7 만건) 보다 감소한 243.8 만 건을 기록해 경제 재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고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4 주 평균은 지난주(354.3 만 건) 보다 감소한 304.2 만 건을 기록했다.

5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56.6) 보다 개선된 -43.1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신규 수주(-74.1→-25.7), 출하지수(-74.1→-30.3), 고용지수(-46.7→-15.3) 등 대부분이 개선 되었다. 다만,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 영역을 기록해 기업의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5 월 제조업 PMI 는 전월(36.9) 보다 개선된 39.8 로 서비스업 PMI 도 전월(27.0) 보다 개선된 36.9로 발표되었다.

4 월 기준 주택 판매는 전월(527 만건) 보다 감소한 433 만건을 기록했다. 중간 판매 가격은 전년 대비 7.4% 상승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국제유가는 전일 발표된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및 쿠싱지역 재고 포화 상태 개선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더 나아가 미국을 비롯해 OPEC 국가들의 추가적인 감산에 따른 공급 감소 기대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특히 일부 투자회사에서 제기된 하반기 수요 우위 가능 기대 또한 투자 심리 개선 효과였다.

달러화는 미-중 마찰이 확산된 가운데 달러 수요가 증가하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의 홍콩 입법을 앞두고 트럼프가 강경 발언을 하고, 미 상원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강세를 유지했다. 더불어 주요 지표들 중 심리 지표들이 전월 대비 개선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또한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주요 지표들 중 심리 지표들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 불안이 이어지자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여기에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한 연준위원들이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고, 홍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마찰은 하락 요인이지만, 연준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 주택 지표 개선이라는 상승 요인과 충돌한 점도 보험권 등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와 경제 재개 영향으로 혼조 마감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81% 철근은 0.23%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33.92	+1.28	+21.66	Dollar Index	99.434	+0.31	-1.03
브렌트유	36.06	+0.87	+15.84	EUR/USD	1.0948	-0.29	+1.32
금	1,721.90	-1.72	-1.09	USD/JPY	107.61	+0.07	+0.34
은	17,364	-3.70	+7.48	GBP/USD	1.2222	-0.19	-0.07
알루미늄	1,521.00	+0.56	+3.12	USD/CHF	0.9706	+0.57	-0.26
전기동	5,390.50	-0.96	+3.62	AUD/USD	0.6568	-0.44	+1.64
아연	1,983.50	-2.60	+1.35	USD/CAD	1.3950	+0.35	-0.71
옥수수	317.75	-0.55	+0.08	USD/BRL	5.5602	-2.33	-4.37
밀	516.00	+0.44	+2.74	USD/CNH	7.1356	+0.44	+0.36
대두	835.00	-1.39	-0.24	USD/KRW	1230.90	+0.05	+0.24
커피	104.75	-0.85	-1.83	USD/KRW NDF1M	1232.58	+0.41	+0.41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677	-0.32	+5.51	스페인	0.626	-0.90	-11.70
한국	1.341	-1.90	-3.90	포르투갈	0.746	-0.60	-11.00
일본	0.001	-0.50	+0.30	그리스	1.733	-5.60	-30.50
독일	-0.495	-2.70	+4.80	이탈리아	1.611	-1.90	-20.40